

#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식) (510) 562-3843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thmschae@yahoo.com

사무실 Tel (510) 553-9434  
 Fax (510) 639-4842  
 standrewoak@gmail.com

|       |                    |                                  |                   |                      |          |             |                    |
|-------|--------------------|----------------------------------|-------------------|----------------------|----------|-------------|--------------------|
| 미사    | 주일 미사              | 오전 8:00 오전 11:00<br>영어미사 12시 30분 | 성사                | 고백 성사                | 미사 30분전  | 예비자<br>교리   |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
|       | 평일 미사              |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                   | 유아 세례                | 2주일 전 신청 |             |                    |
| 신심    | 성 시간               |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지속적인<br>성체조배      | 병자 성사<br>봉성체         | 2주일 전 신청 | 통신교리 - 전화문의 |                    |
|       | 성령 기도회             | 매주 토요일 미사 후(대건회관)                |                   |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          |             |                    |
|       | 향심 기도회             | 매주 토요일 미사 후(106 회의실)             |                   |                      |          |             |                    |
|       | 하느님의 뜻영성           |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 회의실)            |                   |                      |          |             |                    |
| 주일 학교 | 매주일 오전 11:00-12:15 | 한국학교                             | 토요일 오전 9:40-12:50 |                      |          |             |                    |



[제 1독서] 민수21,4-9  
 [화답송] 시편78(77), 1-2, 34-35, 36-37, 38(◎7-)  
 ◎ 하느님의 업적을 잊지 마라.



- 내 백성아, 나의 가르침을 들어라.  
내 입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입을 열어 격언을,  
예로부터 내려오는 금언을 말하리라. ◎
- 죽이시던 그때서야 그들은 하느님을 찾고, 그분께 다시 돌아와,  
하느님이 그들의 바위이심을 기억하였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
- 그 입으로 그분을 속이고, 혀로는 그분께 거짓말을 하였네.  
그분께 마음을 굳건히 두지 않고, 그분 계약에 충실하지 않았네. ◎
- 그분은 자비로우시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셨네.  
당신 분노를 거둬들이키시고, 결코 진노를 터뜨리지 않으셨네. ◎

[제 2독서] 필리2,6-11  
 [복음 환호송] 2코린5, 19참조  
 ◎ 알렐루야  
 ○ 주님께서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복음] 요한3, 13-17

|    |        |       |            |            |        |
|----|--------|-------|------------|------------|--------|
| 성가 | 8시 미사  | 입당 31 | 봉헌 215 513 | 성체 188 175 | 파견 286 |
|    | 11시 미사 | 입당 30 | 봉헌 215 513 | 성체 188 175 | 파견 286 |

## 주일 전례 봉사

| 구분     | 성십자가현양축일(9월 14일) |          | 한국순교자대축일(9월 21일) |            | 연중 제26주일(9월 28일) |           |
|--------|------------------|----------|------------------|------------|------------------|-----------|
|        | 8시미사             | 교중미사     | 8시미사             | 교중미사       | 8시미사             | 교중미사      |
| 미사해설   | 이바오로(명국)         | 권미카엘(창모) | 임루카(승원)          | 전베로니카(진영)  | 정스텔라(애리)         | 김말가리다(미숙) |
| 제 1 독서 | 강요한(신호)          | 최다니엘(대연) | 최베네딕토(환준)        | 허라우렌시오(순구) | 정프란치스코(일환)       | 심미카엘(태규)  |
| 제 2 독서 | 김안젤라(영선)         | 이골롬바(정연) | 최베네딕다(수영)        | 김엘플레다(수연)  | 정글라라(영희)         | 심헬레나(승화)  |
| 보편지향기도 | 독서자              |          | 독서자              |            | 독서자              |           |

## 성 십자가 현양 축일

“사람의 아들은 들어 올려 져야 한다.” 성 십자가 현양 축일을 맞이하며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들어 올려 지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명예나 돈으로 아주 높이 들어 올려 졌으면 더 좋을 텐데’ 라는 잘못된 생각을 비롯하시는 하느님의 뜻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 올려 지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꼭 이 방법 외엔 없으셨을까?’ 를 묵상해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그 크신 뜻을 감히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신앙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느님의 나라를 갔는데 세 가지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든 의문은 ‘내가 어떻게 여기에 올 수가 있었지?’ 였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참 못산 것 같은데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이 참 이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은 못 왔을까?’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못 왔다는 의문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의문은 ‘어떻게 저 사람이 올 수가 있지?’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잘 살아온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보다도 먼저 왔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눈과 마음으로 하느님을 판단한다는 것은 교만이 라는 아주 커다란 죄를 짓게 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왜 이 방법을 선택하셨습니까?’ 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성경 말씀 속에서 하느님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바로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사랑법이라는 것이 오늘 축일의 의미이며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총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이만큼!” 집에서 나 직장에서도 성당에서 늘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나는 얼마나 사랑을 드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성당에 다닌다고 묵주반지, 묵주팔찌를 끼고 다니는데 정작 묵주기도 한번 안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적당히 세상과 타협을 바라면서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어떤 것이 내게 더 이득이 올까 어느 쪽이 더 편할까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하느님께 조건을 수도 없이 걸면서 이것이 당연하다고 스스로 최면을 거는 모습이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외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루를 지내면서 집에 걸려 있는 십자가를 단 한 번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도 못 보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하느님의 사랑도 나에게서 남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 이상 신앙 안에서 더 큰 슬픔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감사합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항상 흘러넘쳐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래 내가 널 위해 이렇게 있다.” 하시며 두 팔을 벌려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주님을……. 우리의 주님을…….

윤자면 빈첸시오 신부  
인천교구 심곡본당 주임

**2014년 신앙생활 지침**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코린1, 12,7)

생명의 말씀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

벌써 30년이 된 일입니다. 봉성체를 위해 본당 근처에 살고 있는 한 청년을 한 달에 한 번 찾아가 병자 방문을 했습니다. 그 청년은 정상인보다 몇십 년 먼저 노화를 일으키는 조로증을 앓고 있는 희귀병 환자였습니다.

그는 외출은 꿈도 못 꾸고 온종일 자신의 방에서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처음 만난 날, 그는 나이를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피부에 주름이 많았고, 하얀 머리털도 많이 빠져 노인같이 보였습니다.

말이 별로 없던 그의 방에 있는 낡은 성경책과 아주 큰 십자가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느 날 봉성체가 끝나고 가려는데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신부님! 제가 몇 살처럼 보이세요?” “...” “저는 스무살입니다. 처음에 왜 나만 이 병에 걸려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과 가족들이 저를 배척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람들과 세상을 참 많이 미워했습니다. 사람마다 십자가가 다르다는데 저는 제 자신이 십자가입니다. 저는 이제 얼마 못산다고 합니다. 제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저도 부활할 수 있겠지요? 그때는 건강했으면...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신부님!”

고개를 꼭 숙이고 이야기를 하는 의젓한 그의 모습을 보며 제 눈에 자꾸 이슬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 만남이 마지막이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는 다음 달 병자방문을 가기 얼마 전 스무 살의 생을 마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은 성 십자가 현양 축일입니다. 우리 구원의 표지요, 생명과 부활의 상징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높이 쳐들고 감사와 찬미의 경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리뿔을 쳐다보고 불뿔에 물렸던 사람들이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 구원과 생명의 표지가 된 것도 바로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구원의 길이고 하느님 사랑의 극적인 표현입니다. 하느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명하게 하느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신앙인이 가야 하는 길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주어지는 십자가는 다를 것입니다. 환경이나 인간관계, 재물, 때로는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나 자신이 십자가가 될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늘 나의 십자가 앞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허영엽 신부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굳어진 습관이  
십자가를 지는 데 큰 장애가 된다.

글\_대 바실리우스 / 그림\_구민정 엘리사벳

말씀의 향기

추 석

맑은 햇살 같은 추석  
그러나 그 투명한 햇살이 예리한 칼날 같아  
피하고만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맑은 햇살이 고통에 가려  
더욱 검푸른 그늘이 드리워진  
진도 팽목항, 그곳엔…….

아직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해류를 타고  
멀어져만 가는 희망을,  
하루하루 시커먼 물 속 깊이  
가라앉기만 하는 희망을,  
목숨이 다 타도록 놓을 수 없는  
죽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석이 오기까지는…….  
아무런 근거 없이 걸어보았던  
마지막 보루  
아이는 아직 떠오르지 않았는데  
왜 어느새 추석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추석은 아이와 함께 와야 했는데  
어찌 홀로 나타났는지 알 수가 없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태양 아래  
그 맑은 햇살을 노란 천막으로 받아내며  
쓰린 굶주림을 매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화문 세월호 단식 농성장  
꼭 안으면 어김없이 느껴지던 포근한 생명  
사랑한다 말조차 조심스러웠던  
소중한 생명  
그 생명이 흔적 없이 흩어져가는 고통  
그 고통을  
굶주림으로나마  
지워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선전 아비한 비방의 칼날에  
굶주린 몸이 해져가지만

목숨이 붙어 있으니  
진실의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만치  
한 아버지가 중학생 아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살아있음이,  
그 당연한 현실이  
갑자기 눈물겨워진 이 나라  
단식의 제레라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더 나은 세상은 못 물려준다 해도  
못 된 세상 검은 구름 너머에  
푸른 하늘이 있음을  
어떻게라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만치  
한 어머니가 앉아 있습니다.  
새벽부터 단식인 명부에 등록을 하고  
아는 이 아무도 없는 이곳에  
자신이 앉은 자리만큼  
고통이 물러갈 것을 바라며  
자신이 앉은 자리만큼  
희망이 고여 들 것을 믿으며  
말없이 홀로 앉아 책장을 넘깁니다.  
떠나간 아이들에게 갚아야 할  
빛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추석의 맑은 햇살이  
누리에 고요히 내려앉고 있습니다.

2014년 추석에  
임성빈 토마스 아퀴나스 올림

## 성경산책 마르코 복음서 :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사람의 아들

마르코 복음서는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로 간주되며 간결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의 저자는 자신의 복음서를 예수님의 활동이 이루어진 장소에 따라, 예수님께서 이동하시는 경로에 따라 복음서를 구성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활동이 이루어진 곳은 갈릴래아 호수와 그 주변이었습니다.(마르 1,1-8,26) 그곳을 떠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두 번째 부분은 이 여정과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르 8,27-10,52)

그리고 마지막 장소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게 되는 예루살렘입니다.(마르 11,1-16,8) 마치 마르코 복음은 예수님의 삶을 갈릴래아에서 출발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처럼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삶은 당신의 죽음의 장소인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서는 죽음과 부활 이후에야 다시 갈릴래아로 돌아옵니다.(마르 16,7)

이러한 틀은 마태오와 루카에게 영향을 주었고 공관 복음서의 중요한 신학적 구조가 됩니다. 마르코 복음의 중요한 영향 중 하나는 ‘사람의 아들’ 이라는 호칭입니다. 이 호칭이 처음 사용될 때, 저자는 하느님의 고유한 권한으로 생각되던, ‘죄를 용서하는 권한’ 이 사람의 아들에게 있음을 이야기합니다.(마르 2,10) 또한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 으로 표현됩니다.(마르 2,28)

이 호칭은 예수님의 수난 예고(마르 8,31-33)에 다시 등장합니다. 세 번에 걸친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 예고는 마르코 복음 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수난과 부활 예고는 비슷한 형태(수난 예고 - 제자들의 몰이해 - 가르침)로 반복됩니다. 마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조금씩 이해해 가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내용적으로는 사람의 아들이란 표현을 통해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수난과 죽음을 겪고 부활하리라는 복음의 핵심에 대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의 아들은 종말 때에 다시 오실 분으로 드러납니다. 수난 예고처럼 세 번에 걸쳐 표현되

는 ‘다시 오심’ , 곧 ‘그리스도의 재림’ (마르 8,38; 13,26; 14,62)은 죽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 종말의 심판자임을 나타냅니다.

결국 마르코 복음은 사람의 아들이란 호칭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며, 그분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마르코 복음은 제자들을 뽑으신 이야기에서 제자들의 첫째 목적을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 이라고 표현합니다.(마르 3,14)

복음의 선포나 권한을 통해 예수님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함께 있음’ 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부활 이후에 복음 선포를 위해 파견되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마르 16,20)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의 능력으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허규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선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 날짜       |   | 지 향         | 봉 헌 자     |
|----------|---|-------------|-----------|
| 9월 14일 일 | 연 | 정벤자민(대업)    | 정데레사(혜경)  |
|          | 연 | 이마르코(재상)    | 가족        |
|          | 연 | 이케네스(상열)    | 가족        |
|          | 연 | 이마리아(정재)    | 가족        |
|          | 연 | 이카타리나(영순)   | 가족        |
|          | 연 | 이카타리나(영순)   | 김데레사      |
|          | 연 | 박돈보스코/박피데스  | 이골롬바/김유릿다 |
|          | 연 | 조바오로(병철)    | 조바실리오(진행) |
|          | 연 | 차예로니모(창섭)   | 차리디아(영화)  |
|          | 연 | 김중화         | 정데레사(혜경)  |
|          | 연 | 이성원         | 정데레사(혜경)  |
|          | 연 | 박길자/박영욱     | 차리디아(영화)  |
|          | 연 | 부모님         | 차리디아(영화)  |
|          | 생 | 천아네스(혜수)    | 김데레사      |
| 9월 16일 화 | 연 | 최베드로(휘중)    | 가족        |
| 9월 17일 수 | 생 | 천아네스(혜수)    | 익명        |
| 9월 18일 목 | 연 | 이마리아(정재)    | 가족        |
|          | 생 | 본당신부님       | 김데레사      |
|          | 생 | 김케네스(관용) 생일 | 김엘리사벳     |
|          | 생 | 조에드워드(용수)   | 유리디아      |
| 9월 20일 토 | 연 | 장요셉(기은) 기일  | 최세레나      |
|          | 생 | 한수산나(서연) 생일 | 익명        |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 구분     | 8시    | 11시     | 영어미사 | 합계      |
|--------|-------|---------|------|---------|
| 미사참석인원 | 78    | 297     | -    | 375     |
| 헌 금    | \$525 | \$1,739 | -    | \$2,264 |

< 교무금 > \$2,710

권영현(9-10) 정병구(9-10) 정지문(9-10) 임윤택(9)  
최환준(6-7) 강성순(9-10) 조우송(10) 김순이(9)  
박영실(9-10) 최옥경(8-9) 채용분(9) 서춘애(9)  
지기재(4-9) 정진희(9) 차영화(9-10) 성동화(8-9)  
이명란(9) 전문자(9) 김옥녀(9)

< 성소후원금 > \$260

정병구(9-10) 임윤택(9) 김순이(9) 박영실(9-10)  
채용분(9) 서춘애(11-12) 정진희(9) 이명란(9)

< Bishop's Appeal > \$150

허은석(1-12) 원광희(1-12)

< 감사헌금 >

김영순 \$200

< 2차 헌금 > \$904

~~~~~ 오늘은 9구역에서 미역국을 판매합니다. ~~~~~

2014년 신앙생활 지침 :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코린1, 12,7)

- 공 지 사 양 -

◆ 2차 헌금 안내

9월 14일(오늘) : Holy Father(베드로 성금)

◆ 전례안내 : 본당의 날 10월 5일에는 8시 미사가 없습니다. 11시 합동미사로 봉헌됩니다.

◆ 본당신부님 영명축일이 9월 29일입니다. 주보에 끼어 있는 영적선물봉헌서를 친교실에 비치된 박스에 넣어 주십시오.

◆ 모임

-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1회의실
- \* 대건산악회 : 매주 화요일/문의 : 510-847-3014
- \* 평협회의 : 9월 14일(오늘) 교중미사 후 107호실
- \* 사목회의 : 9월 21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7호실

◆ 오늘은 8시미사/교중미사 후 9구역에서 미역국을 \$3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 단체 식사 예약도 받습니다.

◆ 오클랜드 성당 창세기 수료자 재교육

일시 : 9월 10일부터 10월 1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반  
대상 : 창세기 그룹공부를 수료하신 모든 분  
강사 : 조마오로 수녀  
장소 : 대건회관  
준비물 : 성경, 창세기노트, 해설서, 필기도구  
문의 및 등록 : 사무실

◆ 빈첸시오 홀리스 140차 식사 제공 봉사

일시 : 9월 25일(목) 오후 4시  
\* 14년 동안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함께 기쁨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 방효익 신부님 여름특강 CD 신청

강의 CD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이나 친교실에 비치된 신청서에 원하시는 수량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음버전(CD 2장) - \$10  
MP3 버전(CD 1장) - \$5  
문의 : 영성부장 707-696-7743

9월 구역모임 고린도전서 13-14장

|       |              |                 |
|-------|--------------|-----------------|
| 1 구역  | 9월27일(토) 6시  | 신준 미카엘라 맥       |
| 2 구역  | 9월20일(토) 6시  | 정일양 안드레아 맥      |
| 7-1구역 | 9월27일(토) 11시 | 파운더스룸           |
| 8-1구역 | 9월28일(일)미사후  | 박일신 바실리오(106호실) |
| 9 구역  | 9월20일(토) 6시  | 강길준 도밍고 맥       |
| 10 구역 | 9월20일(토) 5시  | 이건용 요셉 맥        |

◆ 대건산악회 9월 특별산행 안내

일시 : 9월 16일(화) 8:00AM 성당 주차장 집합  
장소 : Stinson Beach, Mt. Tamalpais Trail  
지참물 : 참가비 \$10, 점심, 음료수, 등산장비 각자지참  
문의 : 510-847-3014

◆ 성장세미나(북가주 성령쇄신 봉사회)

주제 :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의 훌륭한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십시오.” (1베드로 4:10)  
강사 : 한연홍 다니엘신부 (천주교 수원 교구)  
일시 : 10월 17일(금) 오후 4시 - 10월 19일(일) 오후4시  
장소 : The Jesuit Retreat Center, Lost Altos  
참가비 : \$260  
신청 : 각 본당 성령기도회 510-684-7207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 한국순교자들대축일(9/20) : 송이웅 광현아오스딩,  
변귀태 성우안토니오, 장미은 효임골롬바

주일학교 소식

- 9월 14일(오늘) 개강(11:00 ~ 12:15)
- 영어미사 12시 30분

안국학교 소식

- 9월 27일 : 교내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대회